

PEOPLE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해양에너지는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관장과 주요 인사들이 캠페인 표어인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를 들고 인증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참여 기관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해양에너지도 캠페인의 취지에 동참,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을 보탤다.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사진)는 “이번 캠페인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전국기능경기대회 성공 개최 맞은 산인공 광주본부·광주경총 협약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경영자총협회가 9월 지역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경총과 지역 내 능력개발사업 활성화 및 숙련기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특히 16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김덕원 차장이 공단의 국정과제인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사업을 소개했고 이어 윤옥근 광주본부장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소개와 광주경총의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직업능력개발과 숙련기술 확산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 연계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교육훈련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병원간호사회 회장에 이정희 화순전남대병원 간호과장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무안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된 ‘제25회 전남병원간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정희 병동간호과장(사진)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병원간호사회는 전남지역 내 50개 의료기관 4690명의 회원이 소속된 단체다.

이 선임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정희 선임 회장은 “전남지역 병원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수준 향상에 앞장서 간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과 소통으로 더 멋진 간호 현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도, 장애인 권익증진·사회통합 인식 함께 나눠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서 장애인의 날 행사 김영록 지사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자”

전남도는 21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함께 나눴다.

전남도도와 영광군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장애인의 날 공동추진위원회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장세일 영광군수, 이개호·서미화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애인과 가족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행사는 장애인 인물놀이와 난타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합병영화화하고 학생들의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장학금 기탁식 등이 이어졌다.

특히 장애 극복과 사회 참여의 귀감이 된 이들에게 수여하는 ‘전남도 장한 장애인 상’ 시상식에선 작가로 30년 이상 활동 중인 박영실 화가가 대상을 받았다. 박영실 화가는 지체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면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제41~43회 대한민국 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영광 스포티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술대전 입선, 2022~2024년 청와대 장애인예술인 특별전 참여, 제3회 대한민국 장애인사예대전 대상 수상 등으로 장애인예술인의 역할을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전남도 장한 장애인상에 박슬기(한전KDN 소속 장애인사이클 국가대표), 박영철(척수장애인협회 여주시지회장·휠체어댄스스포츠 국가대표 출신), 박주영(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다수

수상자·광고디자인회사 대표)이 각각 수상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 27명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는 뜻을 되새기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여주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

‘마이스산업도시’ 분야··국내 최초 MICE 인증도시 명성 이어가

여주시는 최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마이스 산업도시’ 분야에서 고양시와 수원시·경주시·포항시·춘천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유·무형 제품 또는 기업·단체 브랜드에 대한 △최초상기도 △인지도 △마케팅활동 △브랜드 선호도 등에 대해 온라인 소비자 설문조사와 내부 인증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MICE행사를 1262건 유치, 1470억원 가량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뤘었다. 이로 인해 올해 문화부 MICE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인 ‘예비 국제회의지구’에 선정되는 성과도 이뤘다.

특히 다각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과 사업추진으로 현재까지 총 4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21곳의 여행업체들과 MICE공동 마케팅 및 여수 유치 등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 MICE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수상으로 여수가 대한민국



여주시는 최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최고 MICE도시로서의 인지도와 입지를 굳히고 있다”며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MICE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초등학생 쌀요리체험교실 운영

곡성 오산초 학생 33명 참여··체험비·기념품 등 지원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곡성 오산초등학교 학생 33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전남초등학교 쌀 요리 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체험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팜스테이마을인 녹향월촌마을에서 준비한 꼬마김밥을 만들고 인절미를 빚었다. 또 직접 만든 쌀 요리를 맛있게 먹으며 쌀의 중요성을 느꼈다.

특히 어린 초등학생들은 서로가 정성스럽게 만든 쌀요리 작품들을 칭찬하며, 우리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공동체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쌀 요리 체험교실은 농협 전남본부가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쌀강정, 수제식혜, 꼬마김밥, 삼색경단·바람뿔, 인절미 등 다양한 쌀요리를 체험하면서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전남본부는 재료준비비와 같은 체험비를 지원하며,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쌀 기념품도 함께 제공한다.

지난달 초 학교별로 자율 신청을 시작했으며, 2



주 만에 올해 체험교실 예정 인원인 250명을 초과한 총 10개 초등학교의 260명의 학생들이 접수해 신청은 초기에 마감됐다. 앞으로 초등학교 여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강진과 곡성 두 곳의 팜스테이마을에서 쌀 요리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지난해 전남도교육청과 쌀 소비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올해 농업과 농촌, 쌀을 이해하기 위해 준비한 쌀 요리체험 교실에 많은 초등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초등학교생들이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과 쌀에 대한 고마움을 가질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한현과 차나무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건축자재 제품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농기원, 차나무 부산물 활용 건축자재 개발 업무협약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관)은 지난 18일 ㈜한현(대표 최병달)과 차나무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건축자재 제품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맞춰,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 및 산업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특히, 전남지역의 특산자원인 차나무 부산물을 친환경·저탄소 건축자재로 개발하는 데 양 기관이 뜻을 모은 데에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전남농업기술원은 차나무 부산물의 건축 및 산업 자재화 기술 개발과 친환경 건축자재 제품 연구를 수행하며, 한현은 해당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 생산과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현은 30년 전통의 가족기업 기반을 바탕으로 2020년에 설립된 타일 및 위생기 전문 유통회사로, 포인팅 타일 제작과 소프트양변기를 개발하고 있다.

김행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그동안 차나무 부산물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며 “이번 협약은 농업과 산업 간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나무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제61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1회 한국보도사진전 ‘순간의 포착, 진실의 기록’ 개막식에 참석한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과 내빈들이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취재단



서구, 윤천어린이공원 현장 점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21일 오후 치평동 윤천어린이공원 율령파크에서 어린이 특화놀이터, 쉼공간, 감탄정원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